

企劃論文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 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

김기혁*

| | |
|------------------------|--------------------|
| I. 들어가면서 | V. 맺음말: 군현지도의 연구과제 |
| II. 조선시대 지리지와 고지도 | <참고문헌> |
| III. 군현지도 소장 현황과 지도 유형 | <국문요약> |
| IV. 군현지도의 연구 동향 | |

I.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지리지가 편찬되었으며 지도도 함께 제작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들어 그 종류도 다양해져 전기에는 비교적 상세한 세계지도, 전국 전도 등이 제작되었으며, 후기에는 『여지도서』를 비롯한 읍지가 광범위하게 편찬되었고, 전국지도·도별도 및 관방지도 뿐만 아니라 각 고을을 상세하게 그린 군현지도가 제작되었다. 이들 지도는 낱장 지도로 그려지거나, 지도책 혹은 지리지에 첨부되기 위해 제작되기도 하였다.

문화·역사지리 연구에서 이들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원전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고지도의 경우 영인사업을 통해 일찍부터 보급된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 각 기관의 고지도 목록집이 공개되어 우리나라 고지도가 적지 않게 소장되어 있고, 특히 1990년대에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각 고을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된 군현지도가 영인·보급되기 시작하면서¹⁾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군현지도는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지방 단위로도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지리지와 고지도 자료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분야는 역사지리학 분야이다. 역사지리학의 출발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학문 분야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²⁾ 각 학문 분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분야, 혹은 역사학과 지리학의 접이 지대에 위치한다는 주장, 과거의 공간을 복원하는 분야라는 정의로 그 논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³⁾ 역사지리학의 정체성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이는 각 나라별로 지리학의 발전 방향과 역사지리학의 인접 분야인 역사학, 경제사, 사회사와 자연지리학과와의 교류 양상이 상이한데서 비롯된다.⁴⁾

세계화와 함께 지역문화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지역 혹은 지방 대상의 역사지리 연구가 중요시되었으며 이의 관련분야가 지역역사지리학(regional historical

- 1) 규장각에서는 소장자료의 영인·보급 사업을 1990년대부터 실시하였고, 2003년부터 정보화사업으로 web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 도서관도 2005년과 2006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한편 영남대 박물관에서는 자체 소장자료를 영인하여 지도첩으로 보급하였다.
- 2) 지리학에서 역사를 어떻게 접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18세기 근대 지리학의 사고틀을 형성한 철학자인 칸트(I. Kant)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8년에 걸친 자연지리학 강의를 바탕으로 지리학의 정체성을 역사학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는 역사학이 시대간의 차이에 대해, 지리학은 지역의 차이를 밝히는 학문이라는 간결한 설명을 시작으로, 역사학자들이 시대를 바탕으로 변화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처럼, 지리학자들은 공간적인 분포를 바탕으로 하여 차이의 유무를 확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연과 인간과 역사는 동시에 출현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은 지리학이 담당하게 되고, 인간과 역사는 역사학이 담당한다고 보았다. 역사학과 지리학이 동시에 외적 감각을 필요로 하는 경험과학인 것은 이 때문이다. Jordan, T. G.(et al), *Human Mosaic, 3rd ed*(Harper & Row Publisher, 1995), pp. 15-20.
- 3) 역사지리학 연구의 내용은 (1) 과거 공간의 연구 (2) 역사적 변천(change through time), (3) 현재 속의 과거(the past in the present)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Norton, W., *Historical Analysis in Geography*(Longman, 1984), pp. 28-29.
- 4) 류제현, 「지역역사지리학과 문화생태학: 문화적 적응과 지역인문생태계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1989), 53-64쪽.

* 부산대학교 교수, 역사지리 전공(khkim@pusan.ac.kr).

geography)이다. 지역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이 분야가 전통적인 역사지리학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목을 끄는 것은 세계화 속에서 지역 혹은 지방 문화의 상실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지역은 단순한 물적 공간이 아니며 주민들이 문화를 매개로 형성한 지리적인 단위이다. 지리학이 지리학, 경관학, 생태학, 또는 공간과학으로 인식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을 구성하는 산지, 자연, 취락, 교통, 생활 양식 등의 종합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지역의 문화를 표현하며, 이를 연구하는 것이 지역학으로서의 지리학이다. 지리학이 현재의 지역적 현상을 설명을 시도하는 학문이나, 지역에서 현존하는 현상은 역사성이 담긴 실체임을 감안할 때, 역사공간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연구는 필수적이다. 지리학계에서도 장소(place)의 의미가 재해석되면서, 역사 경관의 복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의 확인이 주요 연구 주제로 부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역사학계에서도 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재생산 과정의 구조와 변동을 연구하는 사회·경제사학계를 중심으로 공간적인 토대가 되는 각 지방의 자연환경, 자원, 인구, 취락, 시장 등과 같은 지리적 조건의 과거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지니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관련 학계에서 북방과 동해의 영토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강역의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지역문화 연구의 자료로서 지리지와 고지도가 많이 이용되었다. 텍스트로 쓰여진 지리지는 정보량이 많을 뿐 아니라 구성에서도 이미지로 된 지도보다 훨씬 논리적이다. 그러나 고지도는 지역에서 사물의 공간적인 배치와 위치 관계를 이미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 전달력은 지리지보다 효율적이다. 사물간의 잠재적인 관계가 무한정으로 존재하는 공간 배치를 텍스트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지도는 은유로 그려진 이미지와 직유로 수록된 지명과 주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 소비자는 지도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 읽는다. ‘읽혀진’ 고지도는 당시의 지리 정보, 지도 제작 수준 뿐만 아니라 공간 인식, 장소들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역문화 연구 뿐만 아니라 역사학, 지명학, 미술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특히 고을을 상세하게 그린 군현지도는 지역문화 연구에서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토 문화 연구에서 지리지와 함께 중요한 자료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 연구의 자료로 사용

되는 지리지와 고지도를 소개하고, 각 고을의 역사 공간을 상세하게 묘사한 군현 지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연구 동향의 파악을 통해 이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조선시대 지리지와 고지도

1. 조선 전기

조선시대 들어서 왕권 확립을 위하여 지리지 편찬과 지도 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전에 지리지가 역사서에 포함되어 편찬되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상도지리지』(1425), 양성지의 『팔도지리지』(1479), 『동국여지승람』(1486) 등 독립적인 지리서가 편찬되었다. 특히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완성편으로 지리지의 집성편이다. 이 책은 경제, 군사, 행정 관계 등 지방 통치에 필요한 내용이 소략하게 서술되는 반면 인물, 예속, 시문 등이 보장되어 있다. 각 장소에 대해 거리 표현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도총도」와 『도별도』가 첨부되어 지리지와 지도가 결합되기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

관심의 판각 내용에 따라 첨부 지도는 『동람도』라 호칭되며, 목판본으로 제작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徐居正의 서문에 ‘京都의 첫머리에 지도를 첨부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481년(성종 12)에 완성된 『동국여지승람』 第1稿本에 지도가 이미 첨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리지 편찬과 함께 조선 전기에는 역법 확립을 위한 천문학의 연구와 천문 관측 기구가 발명되면서 조선의 윤곽을 정확하게 그린 지도가 제작되었다. 1402년(태종 2)에 그려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조선 부분은 이희가 그린 『팔도지도』이다. 이 지도는 고려시대의 『오도양계도』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조선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린 가장 오래된 지도로 조선 초기 우리나라 지도 발달의 일면을 보여준다.⁵⁾

세종조 압록강과 두만강에 사군 육진이 설치되는 등 북방 영토가 확장되면서

5)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상세하고 정확한 전도 제작이 요구되었다. 세종은 1436년(세종 18) 鄭陟(1390~1475)에게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를 자세히 살피라는 명을 하였으며, 이후 1451년(문종 1) 『양계지도』를 완성하였다.⁶⁾ 1453년(단종 1)에 양성지(1414~1482)는 조선전도, 팔도도, 각 주현도 제작의 명을 받아, 1463년(세조 9)에 『동국지도』를 그렸다.⁷⁾ 정척, 양성지의 지도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같은 유형의 지도가 국사 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조선방역도』이다. 이회의 『팔도지도』보다 내용이 상세할 뿐 아니라 국토 윤곽, 하천 유로 등이 매우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조선 전기에 고을을 그린 지도로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삽입된 삼포 지도가 있다. 이 책은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온 직후, 1471년(성종 2)에 왕명을 받아 편찬한 지리지이다. 지도는 1474년(성종 5) 예조좌랑 남제가 삼포에서 일어난 왜호의 실화 내용을 올릴 때, 왕명을 받아 제포·부산포·염포 지도가 추가되면서 그려진 것이다. 각 포의 지리를 왜관을 중심으로 묘사하였고, 왜인의 호구수와 삼포에서 경성까지의 교통로와 소요 일수가 기록되어 있다.

2. 조선 후기

임진왜란 직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서양의 지리 지식이 유입되고, 서구식 지도가 유입되었다. 중국에서 서구의 지리 지식과 지도를 직접 접한 조선 지식인들은 사상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⁸⁾ 특히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대명의리론이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하였다. 정신적으로는 조선이 중화문명을 지키고 있다는 문화적 자존심은 ‘소중화’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북방 정세의 변동으로 인해 영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

6) 『世宗實錄』 18年 2月 29日, 命知承文院事鄭陟, 率相地及畫工, 往咸吉, 平安, 黃海等道, 圖畫山川形勢以來; 『文宗實錄』 1年 5月 29日, 禮曹參判鄭陟, 撰《兩界地圖》以進. 上曰: “予見地圖多矣, 今此圖最詳悉. 然欲爲圖, 各官相距里數及相對地方, 須當細考. 如某官四面, 距某縣幾息幾里, 若以四方位, 未得正占其處, 則以十二方位泛鐵定之. 各其境內名山, 大川, 大嶺, 古關防, 古邑在某方某地, 亦不可不詳, 其令兩界各官, 尺量上送, 然後更參考校正.”

7) 『世祖實錄』 9年 11月 12日, 前判漢城府事鄭陟, 同知中樞院事梁誠之等進《東國地圖》. 先是, 命陟及誠之等會議政府, 考定《東國地圖》, 至是成

8) 김양선, 「명말 청초 야소회 선교사들이 제작한 세계지도와 그 한국문화사상에 미친 영향」, 『승대』, 6호(숭실대학교, 1961), 16~58쪽.

지면서 변방과 영토에 대한 지도 제작으로 연결되었다. 당시 진경산수화의 발달은 회화식 지도 제작의 바탕이 되었다.

1) 지리지의 편찬

조선 후기 동아시아의 정세는 지리지 편찬과 고지도의 제작에 큰 변화를 유발하였다. 16~17세기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여러 사찬 읍지 등이 편찬되었으며,⁹⁾ 18세기에 들어서는 지역사회가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이전 지리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국여지승람』의 개정 작업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완결되지 못한 채 18세기 중반 『여지도서』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이 지리지의 주목되는 점은 내용에서 지방 통치에 필요한 행정적, 실용적 측면을 추구한 것 외에 읍지의 앞머리에 채색 군현지도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읍지 앞에 지도를 채택하는 형식으로 가장 초기의 것으로 이후의 읍지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¹⁰⁾

조선의 전통과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은 실증적인 학풍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의 지리와 영토를 다룬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유형원의 『여지지』, 신경준의 『강계고』, 『산수고』, 홍양호의 『백두산고』, 『해로고』 등이 저술되었다. 또한 농업 발달에 따른 상업 경제의 활성화로 지역간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 대한 답사기들이 많이 저술되었으며, 이중환은 『택리지』를 편찬되기도 하였다. 19세기 들어 각 고을의 지리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은 읍지가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 여러 차례 편찬되었고, 지도도 함께 첨부되었다.

2) 지도의 제작

(1) 도별 지도첩 제작

조선 후기 목판 인쇄술의 발달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도별 분도와 군현지도책들이 필사본 혹은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널리 보급되면서 지리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도별 지도책으로는 「여지도」, 「천하지도」, 「지도」 등의 제호가 붙은 간략한 지도책들이 제작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9) 양보경, 「16~17세기 읍지의 편찬 배경과 그 성격」, 『대한지리학회지』, 27호(1983), 51~71쪽.

10) 『여지도서』에 군현지도가 첨부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배우성, 「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적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22권 4호(1996a), 142~174쪽 참조.

제작자와 刊記가 없어 제작 시기는 17~18세기, 18~19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내용에서는 도별 분도에서 차이가 많고, 크기가 일정한 목판본으로 제작된 경우 각도의 내용이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지도에 수록된 지리 정보는 조선 전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 후기 도별도 발달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지도는 정상기(1678~1752)가 제작한 『동국지도』이다. 조선의 도별 지도와 전도로, 함경도는 남북 각 1매로, 경기도와 충청도는 합하여 8매로 제작된 지도이다. 이전의 지도와 비교하여 볼 때, 대축척 지도로(42만분의 1)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점에서 축척이 동일하다. 처음으로 百里尺을 사용하여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¹¹⁾

(2) 군현지도책

조선 후기에는 도별도와 함께 각 고을의 지도를 책으로 엮은 지도책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¹²⁾ 이와 같은 군현지도책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지역 파악이 종래의 도별 단위를 극복하여 군현 단위까지 공간적인 형태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며, 제작 주체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지도는 당시 비변사와 홍문관에서 주도하여 제작되었다. 비변사에서 제작한 지도는 영조 10년(1735년경)대부터 각 도별로 회화식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축척과 방위 등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실용적이 되지 못하였고, 이후 1리 방안의 대축척 지도가 제작되었다.

홍문관에서 제작된 영조대의 대표적인 지도인 『해동지도』는 영조 10년 회화식

11) 이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경위선표, 즉 방위좌표를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 일부 본문에 경위선표가 그려져 있으나 원본 제작 당시에 그려진 경위선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神戸博物館 소장본에는 1743년 정상기의 아들 정항령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제목과 함께 線表가 들어 있다. 또한 발문에는 1743년에 정항령이 수정·보완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舊本에서도 선표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이찬, 앞의 책(1991), 10쪽]. 여기에서 말하는 舊本이 정상기의 원본으로 추정되며, 당시 지도가 방안을 바탕으로 그려졌음을 보여준다.

12) 군현지도는 지리지와의 관련성을 볼 때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첫째는 지리지의 부도로 그려지는 것으로 지도화 하기 어려운 조세, 호구수 등은 제외된다. 두번째 유형은 한 장의 지도에 그림과 지리지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지도의 부록으로 지리지가 기록된다. 세 번째 유형은 그림만으로 그려진 지도이다.

으로 작성된 비변사의 도별 군현지도첩을 원도로 활용하여 내용을 일부 보완한 지도이다. 이 지도책이 제작된 영조 26~27년은 홍문관에서 『여지도서』 편찬을 위해 전국 군현의 읍지와 군현지도를 수합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동지도』와 『여지도서』는 전국 군현을 망라하여 지도와 지리지를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편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¹³⁾ 이들 지도가 완성된 후 약 20년뒤인 1770년경에는 새로운 형태의 군현지도 제작이 시도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료에서는¹⁴⁾ 신경준(1712~1781) 영조의 명을 받아 周尺 1寸을 1線으로 하는 방안식 군현 지도를 그렸으며, 『여지도』라 이름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지도는 20리 방안에 그려진 군현지도이며 이어 붙이면 전국 전도가 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대축척 조선전도가 제작되었다. 책자식으로 만들어진 『청구도』와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된 필사본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고, 이들의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제작되었다. 『청구도』(1834)는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판으로 나눈 방안지도로서, 남북이 100리, 동서가 70리가 지도의 1면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도면을 연결시키면 전국 전도가 된다. 대개 2책으로 제본되어 만들어졌다. 『대동여지도』(1861)는 전국을 남북 22첩으로 나누어 분첩절첩식 형태로 제작하였다. 방안을 이용하여 지도 축척을 표현함과 동시에 지도 제작 방법을 나타냈다.

『대동여지도』가 제작된 후 11년 뒤인 1872년 전국 각 군현과 관방을 그린 459매의 대축척 낱장 군현지도가 제작되었다. 흥선 대원군이 집권 후 두 차례의 양요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1871년에는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을, 이듬해인 1782년에는 전국 차원의 지도 제작을 지시한 결과물이다. 이 지도들은 군현뿐만 아니라 여러 관방을 그린 지도까지 포함

13) 배우성, 「영조대 군현지도집의 편찬과 활용」, 『한국학보』, 21권 4호(1995), 154~187쪽.

14) 庚寅年[1770년, 영조 46]에 왕께서 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하게 하였다. 본인이 이 일에 참여하였다. 이미 또한 본인에게 東國地圖를 그리도록 명하여서, 公府에 소장하던 10여권의 [지도]를 꺼내어 諸家の 古本을 찾아가 고찰해 보니, 玄奘[鄭恒齋]가 그린 것 만한 것이 없었다. 마침내 채택해서 약간 교정을 가하였다. 6월 6일에 시작하여 8월 14일에 일을 마쳐서 바쳤다. 列邑圖 8권, 八道圖 1권, 全國圖 족자 1축이다. 周尺 1寸을 1線으로 하여 縱線 76개, 橫線 131개였다. 왕께서 또한 명하여 같은 수를 東宮에 바치게 하였다. 왕께서 친히 小序를 지었다(『旅菴遺稿』 卷之五, <東國輿地圖跋>).

하고 있어서 한 시기에 제작되어 수합된 지방지도로는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도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제작되었고 이전 읍지에 첨부된 지도를 바탕으로 그렸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려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대축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리 정보량은 다른 지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하다.

<표 1> 우리나라 주요 군현지도책

| 소장기관 | 지도명 | 청구기호 | 지도유형 및 비고 |
|---------|--------------|--------------|-----------------------|
| 규장각 | 『海東地圖』 | 古大4709-41 | 8책, 회화식지도 |
| 규장각 | 『朝鮮地圖』 | 奎16030 | 20리 방안식지도 |
| 규장각 | 『八道郡縣地圖』 | 古4709-111 | 3책, 20리 방안식지도(3개도) |
| 규장각 | 『輿地圖』 | 古 4709-68 | 6책, 회화식지도 |
| 규장각 | 『廣輿圖』 | 古4709-58 | 7책, 회화식지도 |
| 규장각 | 『(備邊司印)郡縣地圖』 | 奎12154-12158 | 1리 방안식 지도 |
| 규장각 | 『慶州都會左通地圖』 | 古 4709-26 | 1책, 회화식 지도 |
| 규장각 | 『安東都會左通地圖』 | 古 4709-25 | 1책, 회화식지도 |
| 규장각 | 『地乘』 | 15423 | 8책, 회화식지도 |
| 국립중앙도서관 | 『東國地圖 三』 | 송계貴2702-22 | 1책, 방안식 지도, 경상도 |
| 국립중앙도서관 | 『大韓地圖』 | 古朝61-27 | 6책, 회화식지도 |
| 국립중앙도서관 | 『輿地圖』 | 古朝 61-3 | 4책 6권, 회화식지도 |
| 국립중앙도서관 | 『八道地圖』 | 古朝 61-21 | 6책, 방안식 지도 |
| 국립중앙도서관 | 『海東輿地圖』 | 古2107-36 | 3책, 20리 방안식 지도 |
| 국립중앙도서관 | 『各邑地圖』 | 古朝 61-14 | 1책, 회화식 지도(경상도·전라도) |
| 국립중앙도서관 | 『八道輿地圖』 | 古2702-14 | 5책, 회화식 지도 |
| 국립중앙박물관 | 『忠淸道地圖』 | 本-11650 | 1책, 1리 방안식 지도(추정) |
| 고려대도서관 | 『輿地圖』 | B-10 A-53 | 2책, 방안식지도(4개도) |
| 고려대도서관 | 『慶尙道地圖』 1, 2 | 귀 710 v 1.2 | 2책, 회화식 지도 |
| 고려대도서관 | 『地圖草』 | B-10 A-199 | 3책, 기타 지도(전라·함경·강원 缺) |
| 고려대도서관 | 『地圖』 | B-10 A-52 | 4책, 방안식 지도 모사본(주기) |
| 고려대 박물관 | 『東國輿圖』 | 2664 | 7책, 기타 유형 |
| 장서각 | 『嶺南圖』 | K2-4564 | 3책, 1리 방안식 지도 |
| 장서각 | 『地圖』 | K2-4583 | 4책, 방안식지도 |
| 장서각 | 『關西·關北地圖』 | K2-4544 | 2책, 1리 방안식 지도(방안 없음) |
| 성신여대박물관 | 『輿地大全圖』 | 7-마-26 | 1책, 회화식지도(경기도) |
| 영남대박물관 | 『嶺南·湖南地圖』 | 10196-10203 | 2책, 1리 방안식 지도 수정본 |
| 국립민속박물관 | 『各邑圖』 | - | 1책, 방안식 지도, 황해도·평안도 |
| 국립민속박물관 | 『宦遊帖』 | - | 1책, 14개 군현 지도 |
| 간송미술관 | 『小華輿圖』 | - | 5책, 회화식 지도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고지도DB(1994) 및 필자 방문 조사

III. 군현지도 소장 현황과 지도 유형

1. 소장 현황

2006년 현재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군현지도의 서지사항은 <표 2>와 같다.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 도서관 및 박물관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형태는 대부분 도별로 책자식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도는 18세기에 제작되었으며, 19세기의 지도책은 이전의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표 2> 우리나라 주요 낱장 군현지도 및 읍지 부도

| 형태 | 소장기관 | 지도명 | 청구기호 | 지도유형 및 비고 |
|-----|---------|--------------|------------|----------------------|
| 낱장지 | 규장각 | 『1872地方郡縣地圖』 | 奎 10342 | 458매, 지방지도, 진보 지도 포함 |
| | 규장각 | 『鬱陵島圖形』 | 奎 12166 | 낱장, 울릉도, 朴錫昌 作 |
| | 규장각 | 『鬱陵島外圖』 | 奎 10339 | 낱장, 울릉도, 奎奎遠 作 |
| | 규장각 | 『鬱陵島內圖』 | 奎 10334 | 낱장, 울릉도, 奎奎遠 作 |
| | 국립중앙도서관 | 『東萊釜山古地圖』 | 한귀古朝 61-41 | 낱장, 동래부 |
| | 국립중앙도서관 | 『鬱陵島圖形』 | 古 2702-8 | 낱장, 울릉도, 수토지도 |
| | 동아대박물관 | 『釜山 古地圖』 | - | 낱장, 동래부 |
| | 김해박물관 | 『金海府內地圖』 | - | 낱장, 김해부 읍성지도 |
| | 간송미술관 | 『鬱陵島圖』 | - | 낱장, 울릉도, 수토지도(추정) |
| | 남해아천박물관 | 『南海府內地圖』 | - | 낱장, 4쪽 병풍_남해부지도 |
| | 부산시립박물관 | 『釜山地圖』 | - | 낱장, 10쪽 병풍_부산부지도 |
| | 부산시립박물관 | 『浦山圖』 | - | 낱장, 부산항 |
| | 각 기관 | 『箕城全圖』 등 | - | 낱장, 병풍식, 각 고을 지도 |
| 읍지 | 교회사연구소 | 『輿地圖書』 | - | 부도, 지방지도 |
| | 각 기관 | 『邑誌』 | - | 부도, 지방지도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고지도DB(1994) 및 필자 방문 조사

낱장으로 그려진 지도가 적지 않으며 이의 대표적인 것은 규장각의 『1872년 지방군현지도』이다. 일부 낱장지도는 병풍식으로 제작되기도 하며 대표적인 것은 평양을 그린 『기성전도』 등이다. 울릉도 낱장 지도는 조선 후기 행해진 搜討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그린 지도로 규장각의 『울릉도내도』와 『울릉도외도』 등이 이에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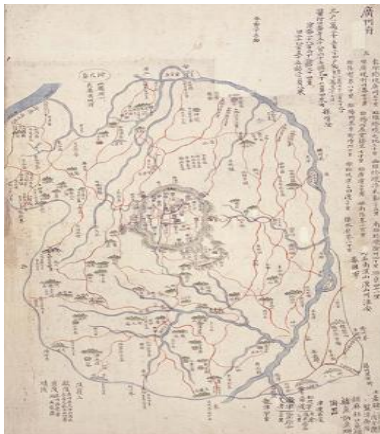
당된다. 읍지에 첨부된 지도로서 대표적인 것은 『여지도서』에 수록된 각 군현지도이다. 이 책이 편찬된 이후 각 지방의 읍지에서 지도가 첨부되었다. 지방에서 화원이 그렸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성은 미약하다. 규장각의 『1872년 지방군현지도』도 이 유형에 속한다.

2. 군현지도의 유형과 지리 정보

군현지도의 지리 정보는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통치·군사·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이들 지도는 일차적으로 고을이나 감영의 화원들에 의해 제작되어 그대로 수록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한 원칙에 의해 지방에서 만들어져 중앙에서 수합되어 재편집 되는 경우가 있다.

산과 하천은 전통 생활공간에서 다른 지역들을 구분하는 단위가 되며 동시에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현지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의례 대상인 신성한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상징성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지도 제작 목적에 따라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림 1>
『해동지도』 광주부(규장각)



<그림 2>
『1872 지방군현지도』 광주부(규장각)



구도와 수록 지명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조선 후기의 군현지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① 회화식 군현지도(<그림 1> 참조) : 홍문관에서 주도하여 편찬된 지도로 회화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규장각의 『해동지도』가 대표적이다. 경물의 형상을 도형화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산과 나무, 강, 바다, 사찰이나 궁궐, 관아의 건물, 성곽, 봉화터 등 경물 도형들의 묘사 방식이 도식적이면서도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 산맥을 산들의 흐름을 따라 八형 먹선을 단선 혹은 2중이나 3중으로 중복시키면서 연결하고 그 위에 연녹색 담채를 가하였다. 관이나 성이 있는 읍지를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면서 상하좌우 각 방향으로 산봉우리를 높이듯이 그리는 개화식 구성방식을 쓰기도 한다. 『해동지도』와 함께 규장각의 『경주·안동도회지도』, 『지승』, 『여지도』, 『광여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여지도』, 『여지편람』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규장각의 『광여도』의 경상도 군현지도는 1리 방안식 지도의 유형에 속한다. 이들 지도들은 서로 모사되면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② 『1리 방안식 지도』 : 비변사에서 주도하여 편찬된 지도와 이를 모사하며 부분 수정되는 지도들이 해당된다. 지도에 1리 방안이 그려져 있으며, 일부 고을에서는 회화식 지도와 유사한 구도를 취하기도 한다. 산맥은 독립된 봉우리로 표현되어 있으며, 도로망과 봉수망이 붉은 선의 직선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군사적인 지리 정보가 강조되어 있다. 규장각의 『영남지도』 등 비변사인이 찍힌 도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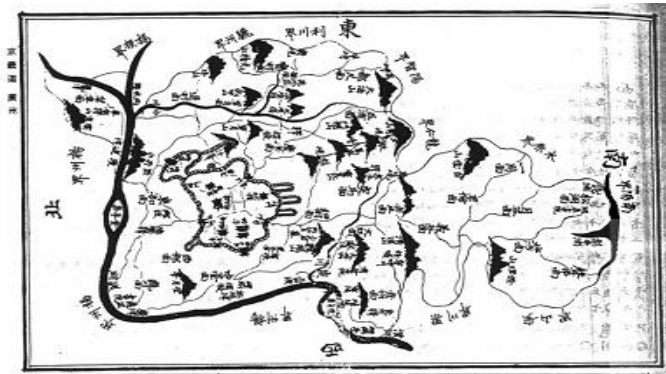
<그림 3> 『조선지도』 광주부(규장각)



책과 장서각의 『영남도』와 영남대박물관의 『영남지도』,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읍지도』가 이에 해당된다.

③ 20리 방안식 지도(<그림 3> 참조) : 지도위에 20리 방안을 그려 동일한 축척으로 그려진 지도로서, 전국 지도의 제작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다. 다른 지도와는 달리 규칙적인 범례를 사용하고 있어 지도학적인 수준이 높다. 산지는 녹색으로 줄기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주요 도로만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동국지도3』이 대표적이며 규장각의 『조선지도』, 국립중앙도서관의 『팔도지도』, 『해동여지도』와 장서각의 『지도』가 이에 속한다. 이중 『해동여지도』는 다른 지도와는 달리 동일 도면에 2~8개 군현까지 한 도폭에 그림으로써, 도별도 제작의 중간단계 지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4> 『여지도서』 광주부 지도(한국교회사연구소)



④ 지방군현지도 : 각 고을에서 지방 화원들이 그렸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실경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지도 중 교회사 연구소의 『여지도서』에 첨부된 지도가 가장 먼저 그려진 지도로 보이며(<그림 4> 참조), 이후 편찬된 읍지의 부도는 이를 모사하고 있다. 낱장 지도로는 규장각의 『지방군현지도(1872)』가 대표적이다(<그림 2>). 한편 이상의 4개 유형에 속하지 않은 지도로 고려대의 『지도초』와 『동국여도』가 있다. 이들 지도의 내용은 20리 방안지도와 유사하다.

IV. 군현지도의 연구 동향

군현지도 연구는 『대동여지도』 등 다른 고지도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1970년에 규장각의 자료가 공개되고 제주도 고지도가 정리되면서 군현지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규장각에 소장된 군현지도책들이 소개되었고 한양과 인근 군현의 지도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군현지도가 영인·보급되면서 폭넓은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학계에서 경관 복원, 영토 문제, 장소의 의미가 중요시되면서 이들 지도는 새롭게 접근되었다. 지방에서는 지역 정체성의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군현 지도를 정리하여 수록한 도록이 출간되었다. 2000년대 들어 자료의 공개가 활발해져 군현지도간 비교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지도 계열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군현지도의 연구 내용은 소장 기관에서는 해제를 통한 지도의 소개 사업이 대부분이다. 학계에서는 지도 제작의 역사적인 배경 및 지도 발달사에서 『대동여지도』와의 관련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방의 고지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역사지리와 고지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 해제사업 및 제작 배경 연구

군현지도책이 해제를 통해 소개된 시기는 전영우(1968)가 보화각(현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5책 338면으로 구성된 『소화여도』를 소개한 것이 처음이다. 그는 해제에서 경기도의 양주도에 1724년(경종 4)에 서거한 경종의 의릉이 나타나고 1721년(경종 1)에 서거한 영조 정성왕후 서씨의 홍릉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조원년에서 영조 33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으며, 지도책에 찍힌 朱印을 바탕으로 소장 경로를 파악하였다.¹⁵⁾

1980년대 들어 군현지도책을 학계에 소개한 이는 이찬 교수이다.¹⁶⁾ 장서각에

15) 전영우, 「보화각 소장의 『소화여도』, 『고고미술』, 9권 1호(1968), 365-366쪽. 현재 이지도의 실물을 열람하지 않았으나 논문에 소개된 경주 지도로 보아 회화식 군현지도책으로 추정된다.

16) 이찬, 「팔도군현지도첩」, 『국학자료』, 37호(1980), 17-19쪽.

소장된 20리 방안식 지도책인 『지도』의 소개를 통해 팔도 군현지도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방안식 도법의 소개를 시도하였고, 여러 편의 글을 통해 군현지도를 소개하였다. 노희방¹⁷⁾은 『여지도서』에 수록된 지도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유행화를 시도하였으나 후속 연구는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1990년대는 군현지도의 단순한 소개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논문이 발표된 시기이다. 양보경¹⁸⁾은 규장각 소장 군현지도 중 비변사 직인이 찍혀있고, 일부 도별 군현지도에서 1리 방안이 그려져 있는 방안식 지도를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지도를 1747~1750년에 각 군현에서 공식적으로 제작된 대축척 지도이며 최초의 방안식 도법으로 제작된 지도로 지도 발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배우성¹⁹⁾은 조선 후기 군현지도집의 제작은 국가의 지역과약이 군현단위까지 구체화되어 가는 증거임을 밝혔다. 동시에 제작 주체에 따라 지도의 성격을 달리 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비변사에서 도별 군현지도집을 편찬하고 활용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비변사에서 시행되던 八道旬官堂上制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명을 시도하였다. 당시에 내실 있는 지역 과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별 군현지도집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만들어지게 되었고, 회화식으로 작성되던 단계로부터 대축척의 획정식(방안식)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홍문관에서 제작이 주도된 『해동지도』의 편찬과정과 관련지어 이 지도는 실용적 차원에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보다는 전국 군현을 망라한다는 탕평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제작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1995년에는 규장각 소장 『해동지도』가 삼성문화재단의 지원에 의해 영인 보급되면서 해설편에 이 지도책을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과 수록 지명이 정리되어 발간되었다. 규장각에서는 이후 연차별로 1872년 제작된 『조선후기지방지도』를 7년간(1996~2002)에 걸쳐 영인하여 해설 논문과 함께 보급하면서 군현지도의 연구 지평을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²⁰⁾

17) 노희방, 「『여지도서』에 게재된 읍지도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0호(1980), 1~17쪽.
 18) 양보경, 「18세기 비변사지도의 고찰: 규장각 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15집(1992), 93~124쪽.
 19) 배우성, 앞의 논문(1995), 154~187쪽.
 20) 이 사업이 끝난 후 『동여도』(2003), 『조선전도』(2004), 『조선지도』(2005), 『동국지도』(2006) 등의

2. 군현지도의 발달과 『대동여지도』 연구

『대동여지도』와 『청구도』가 방안도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리 방안이 그려진 군현지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보경에 의해 소개된 비변사 지도는 군현 지도 중 방안이 그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책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 지도에는 1리 간격 방안이 그려져 있고 일부 지도에는 10리 간격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각 지도의 축척이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 군현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을 내에서 장소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적인 방안 도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규장각의 『조선지도』와 국립중앙도서관의 『해동여지도』 등 각 군현을 20리 방안위에 그린 지도들이 소개되고 이들 지도가 신경준이 제작한 군현지도와 방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 지도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767~177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도』는 전국의 모든 고을을 동일한 축척으로 그려, 이어 붙이면 전도가 완성될 수 있어 지도 발달에 획기적인 계기를 이룬 지도책으로 소개되었다. 이 지도에 대해 양보경²¹⁾은 방안(세로 76개, 가로 131)의 수치가 신경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열읍도 8권, 팔도도 1권, 전국도 족자 1축’ 중 ‘열읍도 8권’이 『조선지도』일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이 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해동여지도』를 거쳐 대축척 전국전도로 발달하였고, 일본에 소장된 『조선도』가 『청구도』 제작의 기반이 된 지도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배우성²²⁾은 『조선지도』라는 지도 표제가 당시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지도책의 내용이 『동국문헌비고』 「여지도」의 일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선지도』를 신경준의 작품으로 보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기봉²³⁾은 성신여대 소장 도별도인 『동국팔로분지도』의 범례를 통해 신경준이 제작한 원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원본이 아니더라도 이를 그대로 모사하거나 수정한 지도로 보았다.

출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1) 양보경,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16집(1995), 84~121쪽.
 22) 배우성, 「18세기 관찬지도 제작과 지리인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b).
 23) 이기봉, 「김정호의 『청구도』 제작 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9권 3호(2004), 473~493쪽.

김기혁(외)²⁴⁾는 조선 후기 동래부를 그린 군현지도 26종의 내용 분석을 통해 지도를 유형화하고 대축척 전국지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그는²⁵⁾ 『동국지도3』을 비롯한 9종의 방안식 군현지도책을 소개하면서, 책의 형태와 구성, 수록 지명을 볼 때 『해동여지도』의 저본이 기존 연구에서 『조선지도』로 밝혀진 것과는 달리 『동국지도3』이며, 『조선지도』는 『동국지도3』을 저본으로 편집된 지도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국지도3』—『해동여지도』—『청구도』로 이어지는 방안식 지도의 계열이 대축척 조선전도 발달의 바탕이 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청구도』 및 『대동여지도』와 방안식 군현지도 중 『해동여지도』와의 관련에 대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문이 발표되어²⁶⁾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첫째 내용은 『해동여지도』와 『청구도』 및 일본 소장 『조선도』와의 관계이다. 이들 지도와의 관계에서 이상태²⁷⁾는 『청구도』의 저본이 『해동여지도』임을 주장한 반면, 양보경²⁸⁾은 일본 오사카 부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선도』에 대한 논문을 통해 이 지도가 『청구도』 제작의 기반이 된 지도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오상학²⁹⁾은 이상태의 주장에 대해 두 지도책에 그려진 방안의 일치성은 인정하나 내용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책을 직접적인 저본으로 삼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았다. 그리고 『청구도』의 저본을 양보경이 소개한 바 있는 『조선도』와 유사한 대축척 전국지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내용상 오류와 청구도 이본(9중)을 확인한 바 있는 김기혁³⁰⁾은 『해동여지도』에 삽입된 「경위전도」의 내용과 일부 『청구도』에 삽입된 「팔도분표」가 거의 비슷하고, 묘사된 읍치 위치와 수록 지명에

24) 김기혁(외),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유형연구: 동래부를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0권 1호(2005), 1~26쪽.
 25) 김기혁,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동국지도3』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9권 1호(2007a), 19~36쪽.
 26) 김기혁,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3호(2007b), 301~320쪽 참조.
 27) 이상태, 『한국고지도 발달사』(해안, 1999).
 28) 양보경, 「일본 대관부립도서관 소장 『조선도』의 고찰」, 『서지학연구』, 17집(1999), 421~436쪽.
 29) 오상학,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 보고서』(국립지리원, 2001), 27~100쪽.
 30) 김기혁, 앞의 논문(2007a), 19~36쪽.

서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동여지도』가 『청구도』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두 지도책이 직접적인 저본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지역 고지도 및 고지명 연구

1) 지역 고지도 연구

군현지도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기 전까지 고지도를 이용하여 지역의 역사 경관 복원 등에 이용된 자료는 주로 『대동여지도』였다. 군현지도가 지역문화의 연구 자료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 제주도의 고지도가 정리되기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이찬은 제주도의 『탐라지도』와 『탐라순력고』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고지도 연구를 시도하면서 고지도를 이용한 지역 역사지리 연구를 시도하였다.³¹⁾ 군현지도가 본격적으로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 이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서울의 고지도가 정리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이다. 허영환은 서울의 지도를 정리하였고,³²⁾ 이를 바탕으로 도록이 출간되었다. 윤용혁은 공주를 대상으로 그린 5종의 지도를 비교 분석하였다.³³⁾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함께 지역문화가 중시되면서, 지역의 고지도 정리를 시도하는 연구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진호,³⁴⁾ 한상복,³⁵⁾ 이상태,³⁶⁾ 이찬·양보경³⁷⁾은 서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우사는 1994년 『정도 600년 서울 지도』를 발간하였으며 이듬해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의 옛지도』 도록집을 출간하였다. 이외에 제주도 연구³⁸⁾가 있었으며, 1996년에 『제주 고지도 도록

31) 이찬, 「18세기 탐라지도고」, 『지리학과 지리교육』, 9호(1979), 1~12쪽.
 32) 허영환, 「서울의 고지도와 고경화」, 『고문화』, 31호(1987), 37~62쪽; 허영환, 「서울고지도고」, 『향토서울』, 46호(1988), 5~54쪽.
 33) 윤용혁, 「조선조 공주고지도 5종의 비교분석: 공주지방 문화유적의 탐색과 관련하여」, 『백제문화』, 제18·19집(1989).
 34) 이진호, 「한성부지도와 육조의 역사지리연구」, 『향토서울』, 50호(1991), 254~285쪽.
 35) 한상복, 「서울고지도 비교연구」, 『향토서울』, 50호(1991), 7~54쪽.
 36) 이상태, 「조선시대 제작된 서울 고지도 연구」, 『향토서울』, 53호(1993), 187~224쪽; 이상태, 「고지도를 이용한 18~19세기 서울 모습의 재현」, 『서울학연구』, 11호(1998).
 37) 이찬·양보경, 「서울 고지도 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학연구』, 3호(1994), 1~39쪽.

집』이 출간되었다. 이외에 지역 단위 고지도 연구를 바탕으로 도록이 출간된 곳은 충남 당진군과 전라남도이다.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소에서는 지역별 고지도의 체계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2002년 제주도·탐라순력도연구회는 『탐라순력도』 연구논집을 발행하였고, 수원시와 강화군 및 경기문화원은 향토 고지도를 수록한 원색 도록집을 출간하였다. 부산대학교 부설 부산지리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부산·경남 시군별 고지도』(8권), 『대구·경북 시군별 고지도』(8권), 『압록강·두만강 고지도』 보고서를 연속적으로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각 지방의 고지도가 지역문화 콘텐츠 구성에서 주요 부분임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전국 기관에 소장된 군현지도와 관방지도들을 종합함으로써 이들의 계열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2004년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08년에 『부산고지도』 도록을 발간 예정이다.

2) 고지명 및 경관 복원 연구

고지도 수록된 고지명을 이용하여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부터이다. 지명연구에서 소축척 조선 전도를 이용하여 주로 ‘동해’ 지명과 독도 및 북방 영토에 대한 연구물이 많았으나 이후에는 군현지도의 지리 정보를 통해 읍치 경관 분석 및 고지명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김기혁은 부산 동래부의 군현지도에 수록된 지명 분석을 통해³⁸⁾ 부산의 역사 지리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어서 울릉도의 고지명의 생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⁴⁰⁾ 이외에도 영남권과 강원권의 일본식 지명의 정비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군현지도를 이용하여 지명 변화의 추적을 통해 일제 강점기 변화된 내용을 파악하면서⁴¹⁾ 우리나라의 고지명 연구에서 군현지도가 유용한 자료가 될

38) 이상태, 「제주도의 옛지도 연구」, 『제주의 옛지도』(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127~129쪽.
 39) 김기혁, 「부산 동래부 군현지도의 유형과 내용분석」, 『한국민족문화』, 19·20(2002), 333~375; 김기혁, 「거창 고지도의 유형과 수록 지명 연구」, 『한국민족문화』, 29호(2007c), 81~113쪽.
 40) 김기혁·윤용출, 「조선-일제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18권 1호(2006), 38~62쪽.
 41) 김기혁, 「경상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국토지리정보원, 2005); 김기혁, 「강원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국토지리정보원, 2006).

수 있음이 확인하였다. 한편 오상학은 고지도에 수록된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라는 기존의 학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⁴²⁾

고지도를 이용한 도시와 읍치의 역사지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소지역을 사례로 고지도를 이용한 역사지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⁴³⁾ 김기혁·김성희⁴⁴⁾는 고지도 자료를 이용하여 동래부 읍치의 경관 복원과 도시 연구에서 고지도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영희⁴⁵⁾는 진주를 대상으로 역사지리 연구를 시도하였다.

V. 맺음말 : 군현지도의 연구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각 지방을 상세히 그린 군현지도가 지역문화 연구에 있어서 지니는 가치를 확인하고 이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군현지도의 연구 동향은 고지도 제작의 역사적 의미와 지도 발달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지역 단위 고지도의 체계화 연구로 구분된다. 특히 역사 경관의 복원과 지명 변화의 연구에 군현지도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현지도에 대한 연구는 고지도 연구가 신비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 문헌 중심의 역사 지리 연구에 있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수준의 향상은 소장 기관의 적극적인 자료 공개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잘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볼 때, 국내 각 기관에 소장된 고지도의 양에 비하여 공개된 지도가 적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연구가 되어 있는 군현지도도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연구 내용도 지도의 제작 배경 및 지도학사적인 발달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해제를 통한 소개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군현지도가 지역문화 연

42) 오상학, 「조선시대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권 1호(2006), 78~101쪽.
 43) 김추윤, 「고지도에서 본 삼교천」, 『삼교천의 역사문화』(당진문화원, 1996), 303~319쪽.
 44) 김기혁·김성희, 「동래 읍성의 경관변화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7권 4호(2002), 317~336쪽.
 45) 이영희, 「진주시 도시구조의 역사지리적 연구: 지리지, 고지도, 지형도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4권 1호(2002), 51~67쪽.

구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소장 기관에서는 지도 수록 정보가 연구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기 위해 다른 서지 자료와는 달리 고해상도의 이미지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군현지도는 다른 고지도와는 달리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료 공개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나 이들 자료가 지니는 중요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둘째로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군현지도는 수록된 지리 정보의 해체를 통해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도는 각 지역 역사공간의 지리 정보를 담은 창고이며 이 이미지 위에 문자 텍스트(지명)가 기재되고 일부 지도에서는 주기도 삽입된다. 고지도에서의 이미지는 과학적이지 않으나 은유적인 표현인 반면 텍스트는 사실에 대한 직유적인 서술이다. 지도 분석에서 지명과 주기 내용의 상세한 분석과 은유로 표현된 이미지의 해석이 동시에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있어서 고지도에 대해 이미지로 보다는 텍스트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도의 인문·사회학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학계에서 필요한 것은 고지도를 통한 학제간의 융합이다. 지역은 자연·인문·사회가 어우러진 공간이며, 이를 그린 지도도 종합 과학의 산물이다. 현재 군현지도는 지리학, 역사학, 회화학 등 여러 학계에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이는 고지도를 소재로 하는 학제간 교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고지도가 이미지와 텍스트로서 동시에 접근되기 위해서는 지리학, 역사학, 미술사, 서지학 뿐만 아니라 지명학, 커뮤니케이션학 등과 학문의 경계를 넘는 학제간 융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로 지역문화 연구에서 군현지도가 자료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지역 개념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군현지도는 조선시대 각 고을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권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을 단위의 고지도를 현재의 행정 구역으로 재구성되어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압록강, 한강, 낙동강 등의 대하천 유역, 해안 지역, 도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문화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군현 지도는 보다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지도는 수장고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유물에 불과하나, 독자에게 읽혀짐으로서 생

명을 얻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 여러 군현지도가 공개되어 있으나 전체에 비하면 아직 일부일 뿐이다. 동시에 고지도에 대한 연구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로 볼 때 학계와 소장 기관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文宗實錄』; 『世祖實錄』; 『世宗實錄』; 『旅菴遺稿』, 卷之五, <東國輿地圖跋>.

김기혁, 「부산 동래부 군현지도의 유형과 내용분석」. 『한국민족문화』 19·20, 2002, 333~375쪽.

김기혁(외),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유형연구: 동래부를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0권 1호, 2005, 1~26쪽.

김기혁,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동국지도3』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9권 1호, 2007a, 19~36쪽.

김기혁, 「거창 고지도의 유형과 수록 지명 연구」. 『한국민족문화』 29호, 2007c, 81~113쪽.

김기혁,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3호, 2007b, 301~320쪽.

김기혁, 『경상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 서울: 국토지리정보원, 2005.

김기혁, 『강원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 서울: 국토지리정보원, 2006.

김기혁·김성희, 「동래 읍성의 경관변화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7권 4호, 2002, 317~336쪽.

김기혁·윤용출, 「조선~일제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18권 1호, 2006, 38~62쪽.

김양선, 「명말 청초 야소회 선교사들이 제작한 세계지도와 그 한국문화사상에 미친 영향」. 『승대』, 6호, 숭실대학교, 1961, 16~58쪽.

김추운, 「고지도에서 본 삼교천」. 『삼교천의 역사문화』. 당진: 당진문화원, 1996, 303~319쪽.

노희방, 「『여지도서』에 게재된 읍지도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0호, 1980, 1~17쪽.

류제현, 「지역역사지리학과 문화생태학: 문화적 적응과 지역인문생태계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 1989, 53~64쪽.

배우성, 「영조대 군현지도집의 편찬과 활용」. 『한국학보』 21권 4호, 1995, 154~187쪽.

배우성, 「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적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22권 4호, 1996a, 142~174쪽.

배우성, 「18세기 관찬지도 제작과 지리인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b.

양보경, 「16~17세기 읍지의 편찬 배경과 그 성격」, 『대한지리학회지』 27호, 1983, 51~71쪽.

양보경, 「18세기 비변사지도의 고찰: 규장각 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15집, 1992, 93~124쪽.

양보경,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16집, 1995, 84~121쪽.

양보경, 「일본 대판부립도서관 소장 『조선도』의 고찰」, 『서지학연구』 17집, 1999, 421~436쪽.

오상학, 「고산지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 보고서』, 서울: 국립지리원, 2001, 27~100쪽.

오상학, 「조선시대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권 1호, 2006, 78~101쪽.

윤용혁, 「조선조 공주고지도 5종의 비교분석: 공주지방 문화유적의 탐색과 관련하여」, 『백제문화』 제18·19집, 1989.

이기봉, 「김정호의 『청구도』 제작 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9권 3호, 2004, 473~493쪽.

이상태, 「조선시대 제작된 서울 고지도 연구」, 『향토서울』 53호, 1993, 187~224쪽.

이상태, 「제주도의 옛지도 연구」, 『제주의 옛지도』, 제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127~129쪽.

이상태, 「고지도를 이용한 18-19세기 서울 모습의 재현」, 『서울학연구』 11호, 1998.

이상태, 『한국고지도 발달사』, 서울: 해안, 1999.

이영희, 「진주시 도시구조의 역사지리적 연구: 지리지, 고지도, 지형도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4권 1호, 2002, 51~67쪽.

이진호, 「한성부지도와 육조의 역사지리연구」, 『향토서울』 50호, 1991, 254~285쪽.

이찬, 「18세기 탐라지도고」, 『지리학과 지리교육』 9호, 1979, 1~12쪽.

이찬, 「팔도군현지도집」, 『국학자료』 37호, 1980, 17~19쪽.

이찬, 『한국의 고지도』, 서울: 범우사, 1991.

이찬·양보경, 「서울 고지도 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학연구』 3호, 1994, 1~39쪽.

전영우, 「보화각 소장의 『소화여도』」, 『고고미술』 9권 1호, 1968.

한상복, 「서울고지도 비교연구」, 『향토서울』 50호, 1991, 7~54쪽.

허영환, 「서울고지도고」, 『향토서울』 46호, 1988, 5~54쪽.

허영환, 「서울의 고지도와 고경화」, 『고문화』 31호, 1987, 37~62쪽.

Jordan, T. G.(et al), *Human Mosaic, 3rd ed.* Harper & Row Publisher, 1995.

Norton, W., *Historical Analysis in Geography.* Longman, 1984.

국문 요약

조선 후기 제작된 군현지도는 전국의 각 고을을 그린 상세한 지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 연구의 자료로서 지니는 가치를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군현지도 연구 동향은 제작의 역사적 배경 및 지도 발달사에서 의미와 지역문화 연구의 자료 이용으로 구분된다. 특히 역사 경관의 복원과 지명 변화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장된 지도의 양에 비하여 연구가 되어 있는 군현지도가 극히 제한적이며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해제를 통한 소개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군현지도가 지역 역사 지리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소장 기관에서는 지도 수록 정보가 연구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기 위해 다른 서지 자료와는 달리 고해상도의 이미지 정보 공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군현 지도는 수록된 지리 정보의 해체를 통해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고지도를 이미지로 보다는 텍스트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도의 인문·사회학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학계에서 필요한 것은 고지도를 통한 학제간의 융합이다. 고지도가 이미지와 텍스트로서 동시에 접근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지리학, 역사학, 미술학, 서지학뿐만 아니라 지명학, 커뮤니케이션학 등과 학문의 경계를 넘는 학제간 융합이 필요하다. 넷째로 지역 역사지리에서 군현지도가 자료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지역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을 단위의 고지도를 현재의 행정 구역뿐만 아니라 하천 유역권 등으로 재구성되어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투고일 : 2007. 8. 10.

● 심사완료일 : 2007. 9. 4.

● 주제어(keyword) : 방안도법(grid-system old map), 지방 군현지도(local county old map), 『여지도서』(Yeojidoseo), 『해동지도』(Haedong-jido), 『조선지도』(Joseon-jido), 지역역사지리(Regional historical geography).